

금년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주빌레)였습니다. 동시에 아픔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승필 paulnasang@naver.com/카톡 ID: nasang53773

귀하신 여러분들의 그 정성, 그 열정, 그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들이 주님 주신 소중한 사역 여기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주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시는- 말로만 듣던 2020 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1 차 대전 중에 있었던 조용한 평화의 갈망 : 영국의 저술가 Arthur Conan Doyle 은 세계역사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지적하면서 1 차 세계 대전 중 1914 년 12 월 24-25 일에 발생했던 회귀한 한 사건을 가리켜 "잔악한 인간 역사 중의 에피소드" 라고 했습니다.

2 천만명(군인 9 백만, 시민 1 천백만)이 사망하고 군과 시민 포함하여 2100 만명의 부상자를 발생했던 잔악함과 참람했던 1 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과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치열한 전쟁을 하던 서부전선(벨기와 프랑스 지역)에서 1914 년 12 월 24 일 적군의 진지에서 전사들은 "고요한 밤거룩한 밤"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성탄'을 독어와 영어로 쓴 팻말 (Frohe Weichnachten, Merry Christmas)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200 여명의 두 적군들은 24 일과 25 일 이틀 동안 축구와 몇가지 놀이를 하며 또 담배를 서로 선물하며 서로에게 즐거운 성탄을 축하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6 일부터 다시 화법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을 계속했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군 상부의 어떤 명령도 없이 전사들이 큰 일을 저지른 것이다. 후에 이 소식을 들을 히틀러와 지휘관들이 군대의 법규를 어긴 전사들에게 분노했지만 벌을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쟁 터에서 상부의 지시없이 개인 행동했던 군사들에게는 사실상 사형 (현지 총살)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물론 유럽 문화에서 성장하고 살았던 군인들이기에 이 사건을 단순히 그들의 문화로 만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 할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인 저술가 Arthur Conan Doyle 가 평한 것처럼 '잔악한 인간 역사 중의 에피소드'였다고 평하는 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서술하는데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사람 (개개인 또는 무리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갈망하고, 또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한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본심은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샘입니다. 그런데 바로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본심이 전쟁시에 현지에서 총살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성탄절에 자연스럽게 조용한 함성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만큼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흔적이 또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눅가복음 4 장 16-21** 에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동시에 결정적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 61 장 1-2 절**의 말씀을 회당의 유대인 앞에서 단순히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바로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 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선언 할수 없었던 폭탄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히브리 민족과 유대의 랍비들이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며 잠못 이루던 하나님의 대 약속 **주빌레**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자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자= 히브리어동사 마사(masah)의 분사형)로서 아버지께 보냄 받으신 분 ("나를 보내사", 보내다= missio)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억눌려 종노릇하는 인간에게 영적인 자유를 마침내 아버지 앞의 전무후무한 심판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인 인류의 저주의 삿을 지拂하시고 사단을 멸하심으로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병든 육체의 치료를- 마침내 부활을 통한 온전한 몸을 갖기까지-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도래 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계 22:3)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요, 동시에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임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적과 기사로써의 예수님의 생애이셨습니다 (눅 7: 22).

타락한 인간들에게 사단이 질주하여 악과 불의와 고통이 만연하고 이땅의 동서 사방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목격하는 이 현실에서 누가복음에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읽을 때마다 저의 적은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때에 상처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저는, 제게 금과 은은 없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이름으로 거저 받은 은사들을 조금이나마 거저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하나님의 평강이 연약하고 상처난 심령들에게-1:** 저희들의 적은 사랑으로 저희 사역의 주변에서 진퇴양란의 형편 중에 처한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마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듯 개개인 또는

가족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적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일하시는 주님이 놀랍습니다.

제가 섬기는 듀렌교회에 새로 온 가족(베잔)이 독일 거주 3년 차인데 일차 추방등으로 부인 자라가 정신병 증상을 앓으며 5개월째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울며 지낸다는 소식을 그 남편으로 부터 접하고 급한 마음에 심방을 했습니다.



좌와중앙: 식당에서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우:** 남편이 병원에서 부인에게 제가 부탁한 성경 구절을 읽는 모습/ **하:** 회복된 후 퇴원하고 교회에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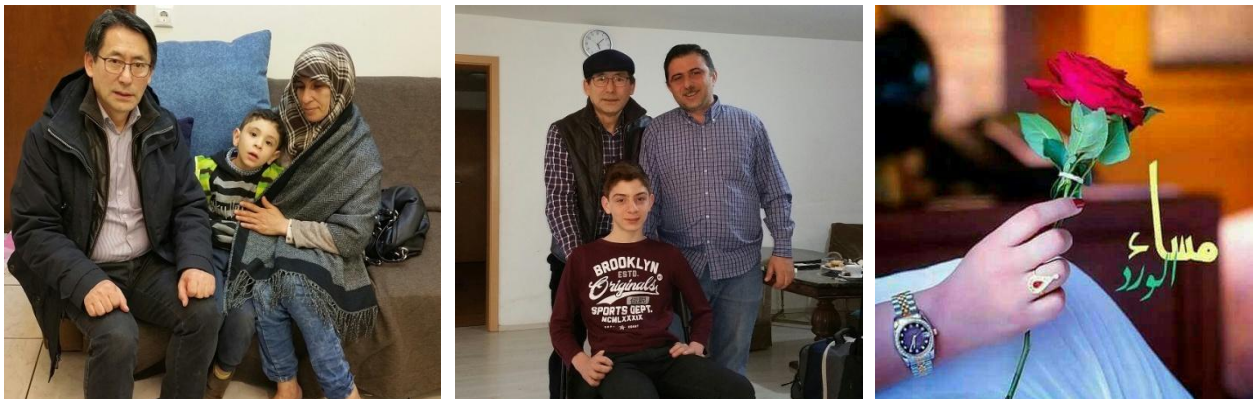
그들은 중동의 자국에서 품위 있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불연듯 국가로부터 집을 압류 당하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채 부로커에게 거액을 주어진 가족이 유럽의 난민법과 난민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체 브로커가 인도하는 동유럽에 일단 도착하여 거기서 난민 등록을하고 다시 비밀리에 독일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동유럽에서 먼저 난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야한다는 (일명 더블린조약에 의해) 규정으로 난민신청을 거절하고 추방을 명했으니 그 가족은 앞 보이지 않고 그 때부터 부인은 정신과 질병으로 울며 지낸다고 합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떠나 온 그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록했던 동유럽 그 나라에서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그의 남편과 딸을 식당으로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한 때라도 마음 가벼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그후 그 가족과 함께 통제가 아주 심한 정신과 병원에 그 부인을 방문하여 특별히 시간을 얻어 성경말씀으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위로했습니다. 부인은 성경을 핸드앱으로 다운로드하여 읽고 묵상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1주일 만에 그 부인이 병원을 퇴원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심령으로 많은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받을 데 없는 그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평강이 연약하고 상처난 심령들에게-2:** 시리아에서 전쟁 중에 그리스를 거쳐 독일에 난민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가족 중에 어떤 사연인지 가족은 먼저 독일에 난민으로 와 있고, 막내 아들과 어머니는 아직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난민으로 있던 2017 년에 제가 그 곳에서 잠깐 사역하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독일에 돌아 온 이후 독일에 있는 그 가족을 방문하여 서로의 교신이 있던 중에 그 어머니 **모나**가 2018 년 가을에 막내 아들을 데리고 독일 가족에게 왔습니다. 독일 정부의 배려로 흩어졌던 온 가족이 오랫동안에 함께 만나 살게된 것입니다.

그 부인(모나)는 독일 가족에게 돌아 온 이후 아랍어만 저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퍼 온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아랍어로 종종 연락을 주곤 합니다. 아테네에서 저의 봉사와 기도를 잊지 못하는 감사의 표현 같습니다. 크고 작은 자녀가 모두 6 명이나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다른 큰 자녀들은 이슬람 정신과 문화에 젖어 있지만 그의 어머니 모나는 저를 만난 이후 성경과 교회를 큰 거부 없이 사모하면서도 가족에게 뚜렷이 표현하지 못하는 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인 모나는 전쟁 때 발바닥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를 만났을 때는 육안으로는 볼수 없을 만큼 심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에 와서 수술을 받고 좋아졌지만 아직은 방안 이상은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좌우): 아테네에서 만났을 때 상태/ 하(좌): 아테네에서 만났을 때/ 중앙: 독일가족방문/ 우: 휴대폰의 장미

이 부인과 가족을 지난 11 월 처음 교회 예배에 픽업하여 인도했습니다. 그의 어린 딸과 막내 아들이 교회 분위기를 좋아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모나는 교회를 자주 오고 싶은 심정 같은데 아직은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무슬림 사상이어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서 교회로 인도하기에는 저희 쪽에서 많은 기다림과 섬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가족이 전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면 활기 있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평강이 연약하고 상처난 심령들에게-3:**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 무슬림 출신인 후세인은 아내와 딸이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그들이 몇년 전에 독일에 난민으로 와서 난민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후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후 부인은 남편을 공격하며 결국은 이혼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딸만 아버지를 종종 방문한다고 합니다. 남편 후세인은 이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보고 있는 저역시 아픔을 함께 겪습니다. (좌사진: 후세인이 산골에 있는 난민 보호소에 머물 때 방문)



*** 하나님의 평강이 연약하고 상처난 심령들에게-4:** 이라크 출신 난민청년 모하만은 열악한 듀렌의 난민캠프에 비교적 오랫동안 있으면서 마치 감옥생활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난민들은 독일 연방난민청의 전략으로써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만 자신은 열악한 난민 캠프에 갇혀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몇 주간 지내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병원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탁구도 했고, 음식도 더 좋았고, 환경도 난민캠프보다 더 좋았다고 하면서 종종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웠었구나"를 동감하면서 그 동안 모하만을 그런 면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도울수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안타까워 합니다. 이같은 모하만에게 진정한 치료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금년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주빌레) 였습니다. 동시에 아픔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주빌레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이라크출신 모하만을 위해서, 2)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 후세인을 위해서, 3) 시리아인 모나가족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4) 베잔과 그 부인 자라가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5) 저희들이 이 섬김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동시에 지혜롭고 온유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니 너무 힘들지만 중대한 이 사역을 감당해 갈수가 있습니다.

여로분을 사랑하면서 독일에서 2019 년 12 월, 나승필, 국루디아, 나사로 올립니다.